

# 소형 흡수식 냉난방기 시장 동향

보일러社 新성장동력 都社

안정적 수요처로 흡수식 관심 폭증

마케팅 포인트로 'LOHAS' 부각

고급빌라·아파트중심 영업강화

소형 흡수식 냉난방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도시가스사에서는 안정적인 가스수요처 발굴을 위해, 기기제조사에서는 신 성장동력으로 흡수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소형 흡수식 냉난방기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냉난방은 물론 온수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 잠재력이 타 냉난방기에 비해 무궁무진하다. 여기에 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성도 뛰어나다.

## 왜? 소형 흡수식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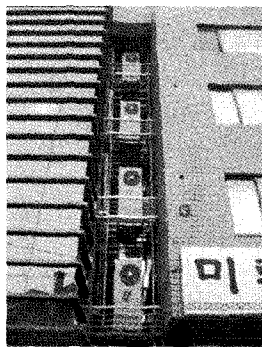
교토의정서 발효로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에 환경개념을 더한 '로하스'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적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빙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면 로하스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오존층 파괴물질이 함유된 제품 사용을 자제한다거나 환경친화적인 환경연료를 사용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도 로하스다. 아직까지는 웰빙처럼 보편적인 사회인식으로 자리잡지는 않았으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로하스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제품은 아마도 소형 흡수식일 것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컨이 아닌 가스를 사용해 냉방은 물론 난방을 한 기기로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 흡수식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오존파괴와 지구온난화와 관계없는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또한 소형 흡수식은 국내 난방문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다. 냉난방은 물론 바닥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풍부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기온도에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공기열원식 히트펌프와 달리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특히 동고하저의 도시 가스 공급 불균형 해결과 하절기 전력 피크 억제에도 역할이 크다.

주요 수요처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현장은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고가라는 걸림돌이 있으나 에너지절감 및 냉난방은 물론 온수 사용이 자유롭다는 장



점이 많아 수요처 발굴은 크게 어렵지 않다.

현재까지 수주된 현장을 보면 일반 건물에서부터 병원, 성당,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특화된 고급브랜드를 앞세운 전문건설사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고급형 빌라나 아파트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신성엔지니어링 VS 코로나

국내에서 소형 흡수식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신성엔지니어링과 코로나가 있다. 신성엔지니어링(대표 이준재)은 국산화된 소형 흡수식을 바탕으로 한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5월 센추리로부터 소형 흡수식 사업을 인수한 이후 품질안정화에 주력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 가격이나 품질경쟁력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현재 신성은 3.4RT급 한 품목만 생산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신성은 올해 연말까지 5RT급을, 내년에는 8RT급까지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중국의 브로드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코로나(대표 최재용)는 버너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해온 업체로 소형 흡수식은 2003년 5월 도입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시범설치를 통해 품질평가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품질에 대한 의문이 많으나 브로드사의 품질관리는 전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현재 코로나는 4.6RT, 6.6RT, 20RT, 33RT 등 4개 모델이 주력이며 흡수식과 Co-gen을 연

계해 냉난방이 가능한 코젠용 BCT 도입도 검토 중이다. 코젠용 BCT는 66RT와 165RT급이 도입 대상이다.

### 보일러업계도 동참

침체에 빠져있는 보일러업계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로 냉난방이 가능한 기기에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내 난방문화의 특성을 갖춘 바닥난방이 가능한 제품은 보일러업계가 찾던 가장 이상적인 기기일 것이다. 소형 흡수식 냉난방기는 이러한 보일러업계의 염원이 담긴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흡수식은 냉난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온돌난방이 가능하고 온수사용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여기에 멀티냉난방기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소형 흡수식 개발에 직접 뛰어든 보일러사는 린나이코리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린나이코리아는 초기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소형 흡수식 냉난방기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일한 보일

러사이기도 하다.

린나이코리아 한 관계자는 “현재 기기 개발은 완료된 상태로 필드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 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식으로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와 경동보일러는 국산화를 시킨 신성엔지니어링의 제품은 받는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연초부터 냉난방기기 사업을 강화하면서 독자브랜드인 ‘홈시스’를 바탕으로 신성으로부터 OEM으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대리점과 설비업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경동보일러도 새로운 돌파구로 소형 흡수식을 선택했다. 역시 신성엔지니어링의 제품을 받아 신성의 브랜드인 ‘제피로스’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롯데기공도 현재 소형 흡수식 도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 보일러사에서 소형 흡수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일러산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BN**



### 인터뷰 / 코로나 최재용 사장

#### BCT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한 제품

버너전문업체에서 흡수식 등 에너지기기 전문업체로 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는 지난 87년 버너전문업체로 설립됐다.

그동안 축적한 열유체분야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생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소형 흡수식 냉난방기인 BCT는 지난해 8월부터 보급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중국 제품이라는 인식으로 어려움이 컸던 최재용 사장은 ‘중국의 브로드사는 이미 미국 흡수식 시장의 45%, 유럽시장에서 3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품질에는 정평이 나 있다’며 ‘브로드

는 기술개발과 품질관리에 자금을 아끼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회사' 라며 중국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BCT 도입 배경에 대해 '냉난방 문화가 발전하면서 보일러와 에어컨을 따로 설치했으나 이제는 패키징화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BCT는 냉난방은 물론 바닥난방도 가능하고 온수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기기' 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는 BCT만 전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출범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인 A/S망을 구축했다. 서울, 경기, 대전, 경북,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 9개의 A/S전문점을 개설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의 버너사업부도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타이어회사인 브리지스톤에 특수버너를 납품했으며 향후 국내 석유화학, 철강 등 특수버너사용이 많은 분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기술개발과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BN**



## 인터뷰 / 신성엔지니어링 이준재 사장

### GAA, GHP시장 잠식할 것

#### 소형 흡수식(GAA)이 향후 GHP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신성엔지니어링 이준재 사장의 장담이다. 지난해 센추리로부터 소형 흡수식 사업을 인수, 품질안정화에 주력한 신성엔지니어링은 올해를 GAA 보급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보급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나 기술세미나를 최근 개최해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준재 사장은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전국적인 대리점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며 '지금까지 50여곳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담보설정 등 대리점 개설을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어 당초 목표인

120개 대리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보일러와 경동보일러에도 GAA를 공급키로 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OEM으로 납품하고 경동에는 통합브랜드인 '제피로스' 로 보급한다.

이준재 사장은 '최근 수수실적이나 견적실적을 보면 오피스텔이나 대단위 아파트 등 멀티시스템에어컨인 GHP 시장에서의 문의가 많다' 라며 'GAA가 병렬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GHP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냉난방시장이 대형화 추세로 바뀐에 따라 신성엔지니어링은 현재 3,4RT급뿐이 제품라인을 5RT, 8RT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도 밝다. 먼저 동유럽권에서 '삼성 브랜드' 를 앞세운 진출이다. 기술력과 제조기술을 겸비했지만 해외에서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마케팅 능력과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과의 만남은 향후 에너지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의 전례로 남을 듯 싶다. **BN**